

I. 주간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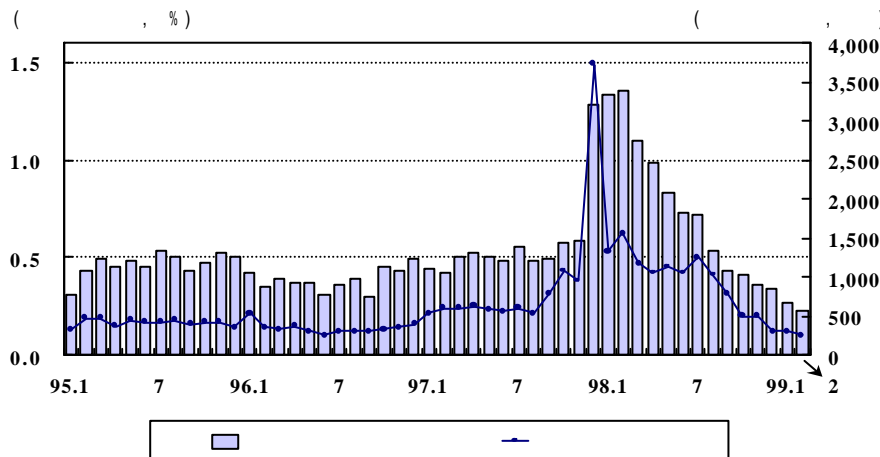
1. 경제 개관

□ 2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

2월 중 어음부도율은 9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어음부도율 감소가 지속될 경우 기업의 부도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줄어들어 신용경색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임

- (현황) 99년 2월 중 전국 어음부도율(금액 기준)은 0.10%로 전월(0.12%)보다 0.02%p 하락하여 96년 6월(0.10%)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 서울이 전월의 0.10%에서 0.08%로 하락한 반면 지방은 전월과 같은 0.28% 기록
 - 또한 전국 부도업체수(당좌거래 정지업체 기준)는 98년 3월 이후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91년 9월(518개) 이후 가장 적은 556개를 기록함
 - 한편 7대 도시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비율은 설 연휴 등으로 신설 법인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월의 11.7배보다 낮은 8.7배를 기록하였으나, 97년 및 98년 평균(각각 3.4배, 2.6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함

<최근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수 추이>



- (평가) 부도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기업의 부도 위험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되어 향후 신용경색의 해소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실물 경기의 회복 가시화가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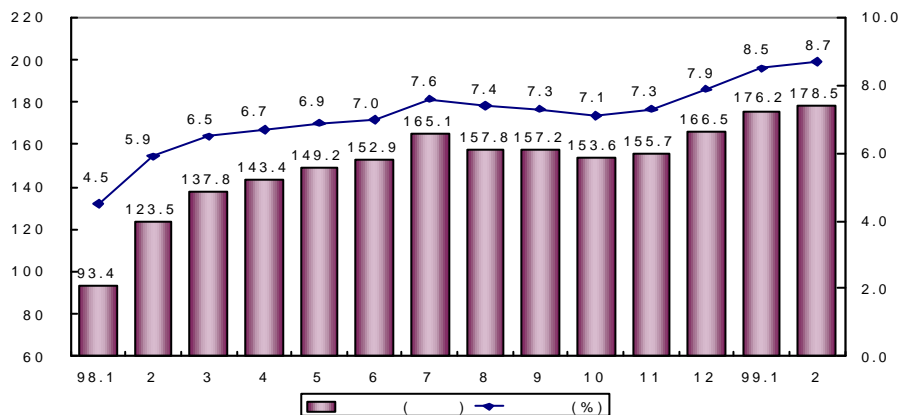
□ 2월 중 고용 동향

2월 중 실업률은 8.7%를 기록하여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그러나 실업률 증가의 주요인이었던 계절적 요인이 소멸됨으로써 향후 실업률은 소폭이나마 하락할 전망이다

- (현황) 실업률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지난 2월 중 실업률은 8.7%를 기록, 1월(8.5%)보다 0.2%p 증가했으며 실업자 수도 178.5만 명으로 2.3만 명이 증가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58.0%를 기록, 전년동월대비로는 1.2%p 감소함. 이는 고용사정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감소된 취업자의 일부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함으로써 실망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 실업률 증가세가 지속된 것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건설업 부문(전월대비 5.8만 명 감소)과 도소매·음식숙박업(3.7만 명)의 취업자 감소에 기인함
- 반면 신규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은 지난 1월 중 거의 완료되어 신규실업자는 소폭 증가에 그침

<실업률 추이>



- (전망) 그동안 취업자 감소의 주요인이었던 계절적 요인이 소멸됨으로써 실업률은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 건설업 부문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신규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거의 완료되는 3월 중에는 실업률이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그동안 비경제활동인구화되어 있던 실망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 금융지표 동향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가치 상승으로 하락세로 반전. 당국의 달러화 매수세 약화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 회사채유통수익률은 단기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의 거래 위축으로 소폭 하락에 그침. 주가는 주요국의 주가 상승, 엔화 강세, 고객예탁금 증가 등으로 인해 상승세 유지

-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하락세

-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면서 하락세를 지속
- 1,230원대를 지지하던 정책당국의 매수세가 약화된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 정부는 원/100엔 환율이 1,000원대 이상을 유지할 경우 개입을 자제
-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유입도 환율 하락을 부채질한 요인으로 작용
- 원/달러 환율은 3월 19일 현재 1,220.8원을 기록

- (자금시장) 회사채수익률 소폭 하락

- (단기 금리) 경기 회복을 위한 장기 금리 인하 유도를 위해 한국은행이 콜 금리 하락을 용인함에 따라 한때 4%대까지 떨어짐. 그러나 주말에 5%대로 재진입함. 콜 금리(1일물)는 3월 20일 현재 5.04%를 기록
- (회사채유통수익률) 기관투자자들의 금리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관망세가 지속되어 수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수익률은 소폭 하락에 그침. 3월 20일 현재 8.71%를 기록
- (국고채수익률) 단기 금리 하락세 지속과 투신사 MMF에 장기국채가 편입되면서 국고채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여 6%대에 진입함. 3월 20일 현재 6.91%를 기록

- (주식시장) 주가 상승세

- 미·일 등 선진국 증시의 호황과 엔화 강세 반전, 고객예탁금 증가 등에 힘입어 상승세 지속. 특히 선물·현물시장에서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가 상승을 선도
- 선물시장 강세에 의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도 주가 상승을 부채질함. 특히 프로그램 관련 대형 우량주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짐
- 그러나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와 주중 이익 실현을 위한 일반투자가 및 기관투자자들의 매도로 상승세가 소폭에 그침
- 3월 19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604.22 포인트를 기록

(동향분석팀 okde@hri.co.kr ☎724-4031)